

합병 지연 ‘티빙·웨이브’… 先 실질통합으로 시너지 낸다

양사 합병 본계약 내년 가능성 커져
CJ ENM,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콘텐츠웨이브 연결 종속회사 포함
비용 효율화 등 실질 통합효과 기대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합병 본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CJ ENM이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며 사실상의 통합 경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 법적 합병 절차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로 지연되고 있지만, 회계 및 운영단에서는 이미 ‘한 몸’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CJ ENM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분기부터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회사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웨이브 이사회 구성원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티빙과 웨이브 로고. 두 기업의 합병 본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각사

반면 기존 웨이브의 최대주주였던 SK스퀘어는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콘텐츠웨이브를 자회사에서 제외했다. SK스퀘어는 3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 주주와의 약정으로 이사회 통제력이 제한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의 통합 작업은 ‘선(先) 실질 통합, 후(後) 법적 합병’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콘텐츠웨이브는 지난 8월 CJ

ENM 출신인 서장호 전 콘텐츠유통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인적 융합을 시작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6월 티빙·웨이브 결합 요금제 도입에 이어 9월에는 통합 광고 플랫폼을 공동 출시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력 편입은 향후 통합 OTT의 회계, 투자, 콘텐츠 전략을 단일 체계 하에서 판단하겠다는 신호”라며 “공식 합병 전이라도 비용 효율화 등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합병 법인 출범을 위한 ‘마지막 도장’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MOU 체결과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냈음에도, 합병 비용과 주주 권한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율 13.54%를 가진 티빙의 2대 주주 KT(kt스튜디오지니)의 마온적인 태도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는 CJ ENM과 SK스퀘어에 밀려 3대 주주로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1위 IPTV 사업자인 KT 입장에서 거대 OTT의 탄생은 자사 IPTV 가입자 이탈(코드커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CJ ENM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진다. 이종화 CJ ENM 경영지원실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에 준하는 운영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합병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양사는 넷플릭스 독주 체제를 견제할 ‘토종 메가 OTT’ 출범을 목표로 연내 합병을 추진해왔으나, 합병 지연이 길어지며 티빙의 재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CJ ENM에 따르면 티빙은 올해 3분기 매출 988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71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가입자 성장 정체와 콘텐츠 투자 비용 부담 속에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회계상 편입을 넘어 물리적 결합이 이뤄져야 중복 비용 절감 등 확실한 합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주 간 쟁점이 복잡하더라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조속한 합병 마무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차기 대표에 33명 지원… 연내 선정

인선자문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내년 정기 주주총회서 최종 선임

KT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 전문가 추천을 포함해 총 33명의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뉴시스

성된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자문단은 사내의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서류 평가 의견을 위원회에 전

달하며,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선자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1인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며, 해당 후보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데모버전 공개

오는 25일 정식 출시 전
핵심전투 사전체험 제공

넷마블은 글로벌 정식 출시를 앞둔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버전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데모 버전은 오는 25일 정식 출시 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일부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미리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플레이를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던전 및 인스턴스로 구성된 ‘월드 콘텐츠’와 타임어택 모드인 ‘시간의 전장’을 경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데모버전 공개와 함께 신규 영상을 공식 유튜브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전투 액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넷마블네오 김광훈 디렉터는 “트위치 콘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데모

버전을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정식 출시에 앞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핵심 전투를 직접 체험하며 즐겁게 플레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기반으로 PC·콘솔 플랫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액션게임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4인이 함께 플레이 가능한 협력 전투 콘텐츠를 비롯해 ‘성진우’의 군주화된 모습으로 전투를 펼치는 ‘군주화 전투’ 등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논, 중부발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등 진행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은 한국중부발전의 ‘AI 에이전트 플랫폼 및 업무 자동화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중부발전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AI 서비스 연동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우선 한국중부발전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폴과 연계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은 회계 전표 작성, 일반 행정 업무와 발전·안전·경영 등 핵심 업무를 서포트한다.

제논은 한국중부발전에 구축된 기존 플랫폼의 기능과 품질 고도화도 추진한다. 그간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코미’를 한국중부발전의 모바일 그룹웨어에 탑재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jk1@

이통3사, ‘PASS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PASS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한 ‘PASS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강검진표, 자격 변동 안내, 환급금 신청 등 다양한 고지 문서를 PASS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 수백 종의 종이 문서를 전자 형태로 발송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PASS 앱은 약 38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증·본인확인 플랫폼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 전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ASS 전자고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P

ASS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서명을 제공한다. 통신3사는 이를 통해 PASS 앱을 국민 일상에 더 밀착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PASS는 메인 화면에서 전자고지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했다. 고지 목록 화면에서는 문서별 열람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열람 문서가 있을 경우 추가 알림을 보내 중요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푸시 알림을 항상 활성화해 사용하는 PASS 이용자 특성상 높은 열람률도 기대된다. 실제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의 필수 고지 문서 열람률은 약 55% 수준이며, 전자고지 서비스 역시 업계 평균을 웃도는 성과가 예상된다. /김서현 기자

LG U+, 협력사와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

U+동반성장보드와 꾸러미 730개 제작

LG유플러스는 연말을 맞아 협력사 협의체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12’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과 동반성장보드 소속 60여 명은 17일 용산사옥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꾸러미 730개를 제작했다. 꾸러미에는 양측이 올해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쌀, 식료품, 손난로 등이 담겼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와 협력사 간 소통과 제도 공유를 위한 협의체로, 장비·IT서비스·공사·디바이스 등 4개 분과의 32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준비된 꾸러미 730개는 독거노인



사진은 17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 모습. /LG유플러스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르신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승운 동반성장보드 의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준비한 행사인 만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